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이야기 공모전 심사평

응모한 글이 대체로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속초 토박이들이 지닌 가장 속초적인 문화콘텐츠 원형을 보여주는 스토리들이고, 또 하나는 속초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한 스토리들이다.

글을 읽으면서 속초지역의 장소와 공간이 지닌 스토리와 콘텐츠가 지역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 속 지역의 콘텐츠를 되살리고 나아가 속초에 와서 체험한 스토리들이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모전이 속초의 문화원형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맞게 계승하여 속초만의 이야기 브랜드를 만드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작품은 모두 150편이고, 심사평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총평은 글을 응모한 사람들 대부분이 바다와 설악산의 도시 속초에 대한 기대와 로망, 만족을 드러내는데 진심을 다했다는 것이다. 속초가 힐링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써준 모든 응모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심사기준은, 문장이 거칠고 문학적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글이 지닌 진솔함과 진심에 무게를 두었다. 속초의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속초의 전통가치를 복원할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에도 무게를 두었다.

속초를 다녀가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속초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장소로서 의미를 두고 경험한 스토리를 쓴 글에 무게를 두고 선정하였다.

- 심사위원 권정남, 남윤희, 박대우, 한정규, 함복희 -